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1월 21일(주일) 제1476호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2023-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되기를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다.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2024 목회사관학교’

온누리교회 목회자 348명 참석

2024 목회사관학교가 1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강원도 오크밸리 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주제로 막 오른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348명이 참석한다.

이번 목회사관학교에서는 찬양과 예배, 강의와 소그룹 나눔, 기도회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이기원 목사(목회기획실장)는 “이번 목회사관학교를 통해 온누리교회 모든 목회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삶을 본받고, 성도들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회사관학교는 국내 온누리교회 목회자들과 해외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 지역 방향을 공유하고, 쉼과 휴식, 동역의 기쁨을 만끽하는 장(場)이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가 22번째다.

2024 Acts29 비전 콘퍼런스

‘2024 Acts29 비전 콘퍼런스’가 지난 1월 19일(금)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렸다. 미주, 일본, 중국, 본부 권역 담당 목회자, 비전교회 협력위원, 스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2024 Acts29 비전 콘퍼런스’는 박종길 목사 비전의 말씀, 이광순 장로 격려사, 권역별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종길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문영재 목사(홍콩온누리교회)는 “해외 비전교회 목회자들과 교제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1월 20일(토)과 21일(주일) 국내 11개 온누리교회 주일예배에서는 해외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한다.

생명 나누고, 복음 전하고!

3월까지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 4’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가 한창이다. 부활절(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된다. 헌혈하기 전에 ‘온누리교회’ 또는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혀야 생명나눔의 기적 인원으로 집계된다(한마음혈액원만 해당).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과 한 줄 소감’은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2714-0291)로 보내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2023-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종료 매주 월~금 캠퍼스별 오전 5시 30분 새벽기도회

2023-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끝났다.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로 작정했다.

2023-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주제로 막 올랐다. 지난해 12월 11일(월)부터 올해 1월 20일(토)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11개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됐다. 24개 해외 비전교회와 선교지, 기도처 등지에서도 CGN Live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실황 중계로 새벽기도회에 참여했다.

2023-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등이 주별 소주제를 따라 말씀을 선포했다. 1주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감’, 2주 ‘그리스도와 담대히 동행함’, 3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히 거절함’, 4주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도전함’, 5주 ‘그리스도께 담대히 순종함’, 6주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함’이 그 주제였다.

2023-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마지막 주간이었던 지난 1월 15일(월)부터 20일(토)에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함’을 주제로

15일 강부호 목사 ‘다시 찾는 기쁨’(눅 15:31~32), 16일 장경문 장로 ‘사람을 살리는 어부들’(마 4:18~20), 17일 김홍주 목사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롬 10:13~15), 18일 이재훈 위임목사 ‘보낸 받은 사람들’(요 20:19~23), 19일 권성찬 선교사 ‘예수 구속과 선교의 주’(눅 24:46~49), 20일 이재훈 위임목사 ‘그리스도의 대위임령’(마 28:16~20)을 주제로 설교했다(메시지 8-9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한 새벽 발걸음은 계속된다.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는 1월 22일(월)부터 매주 월~금 오전 5시 30분 서빙고와 양재를 포함한 캠퍼스별(강동 제외)로 진행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 모집

2월 말부터 10월까지 총 6개반 개강

예수제자학교(JDS: Jesus Disciples School)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예수제자학교(JDS)에서는 총 6개 반(서빙고 주간반, 저녁반, 양재 주간반, 저녁반, 부천 주간반, 수원 저녁반)을 개강한다.

서빙고와 부천 주간반 2월 29일(목), 양재 주간반 2월 27일(화), 서빙고와 양재 저녁반 2월 24일(토), 수원 저녁반 3월 2일(토) 개강한다.

예수제자학교 주간반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여성만 참여할 수 있다. 저녁반은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열린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입학신청서(교역자 확인 필수), 추천서(교역자, 교사, 직장상사, 은사, 지인 등 추천자 직접 작성)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다음 사진 2매와 함께 2월 18일(일)까지 각 캠퍼스 본당 로비에 마련되는 안내데스크나 목회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주간반 40명(여성만), 저녁반(남녀 모두) 50명씩 모집한다. 회비는 70만 원(전도여행비 별도).

문의: JDS 본부: 02-3215-3625(3534)

서빙고 주간 010-9287-8773

서빙고 저녁 010-5240-9700

양재 주간 010-4994-3602

양재 저녁 010-6201-9115

부천 주간 010-5040-3368

수원 저녁 010-2583-7607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기다림 없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성취로 착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약속하신 선물 곧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기다림을 기도의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약속하신 선물이 언제 올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오순절의 성취라는 것을 후에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지만, 제자들은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을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 약속하신 선물이 임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다림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다림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의 위대한 여명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평소 그들이 자주 모였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이 120명 정도라고 합니다. 11명의 예수님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그밖에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14절).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출발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한마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한마음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의나 세미나로 하나 되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에서 매년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에 온누리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전념하는 기도였습니다. ‘전념’이라는 뜻은 각자의 필요한 문제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뜻을 구하며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바라보며,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나의 필요와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다

사도행전 1:12~26

와 필요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 하나님 나라에 전념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구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각자의 필요한 문제도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며, 응답하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왜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 할까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기도하는 한 명의 성도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리아의 성숙함은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 했거나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성도들과 같이 기다리며 기도하는 한 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이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성모 마리아를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 육신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또한 누가의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비난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함께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언젠가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까지도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

그들이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자기 과신이 가득했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는 충동적이고, 나서기를 좋아했습니다. 베드로가 리더십이 성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리더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워낙 나섰기 때문에 그냥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무엇이든 해 보려고 하고, 나서려는 그 열심과 태도, 적극성을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만일 주시거든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면 이런 제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발짝을 배 밖

으로 내딛어서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자기 과시가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특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열심과 특심이 변화되면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품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사도들 가운데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과거 같았으면 “내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깝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었겠지만 달랐습니다. 과거 어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이후 제자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주시는 그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도 그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가롯 유다에 관한 문제를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제자들은 유다의 일을 꺼내지 않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게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일어나 “구약에 유다에 관한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건, 가롯 유다의 배신까지도 구약의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도 세우는 일,
교회 출발의 첫 번째 사역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16~17절).

베드로가 어떻게 유다의 사건과 〈시편〉69편 25절에 기록된 배반의 사건을 연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율법학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당시 서기관과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이 말씀이 이 상황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 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이 시대에도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고,
세워지는 일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때 동일한 성령님이시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과 〈시편〉 말씀을 연결한 것처럼 말입니다. 유다의 배신이 구약에 예언되었다고 해서 그의 죄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악역을 해야 해서 유다가 희생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예언에 대한 순종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과 편견, 고집으로 변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이 말씀과 상황을 연결하면서 깨달은 것은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했습니다”(20절).

〈시편〉 109편 8절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상황과 이 상황은 다르지만, 성령의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상황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1명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11명이 함께 사역하면 되지만 12명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두 보좌, 열두 지파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문자적인 의미의 12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4천이라는 숫자도 12×12×1000입니다. 지금 모인 이들을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진짜 120명이라는 의미보다,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초 숫자라고 해석합니다. 곧 교회의 출발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출발을 가리키는 숫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 유대 법에 의하면 자체 의회를 가진 공동체 최소 숫자가 12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의 출발을 가리키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이라는 메시지, 상징성, 12지파, 12보좌, 14만4천이라는 숫자는 어느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는 14만4천 명만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만물이 회복되는 의미의 숫자가 12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결핍이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교회 출발의 첫 번째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증인들, 하나님 나라 대사들

결국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사람이 리더십이 되는가가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사도의 자격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를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뵈어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21~22절).

사도의 자격이 나옵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의 정체성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세워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두 사람을 추천해서 한 사람을 예비 뽑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맛디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셔서 이 봉사과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 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맛디아가 뽑혀서 그가 열한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23~26절).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택하는 거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발견하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어를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택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들이 타 교회 담임목사에 지원 또는 요청을 받아서 가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교회 리더십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 부류로 나뉩니다. 담임목사를 고용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담임목사를 CEO를 찾듯이 고용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지도자를 찾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이 택하고, 예비하신 목회자를 분별하도록 기도하는 교회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전자의 교회는 청빙이 돼도 얼마 가지 않아서 갈등과 대립 속에 분열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후자의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며 교회가 다시 부흥합니다. 이 문구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모든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기도가 계속 있을 때 사도행전적 교회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예비 뽑았습니다. 예비 뽑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과 맛디아 두 사람을 추천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기도가 가장 앞섰고, 그 다음이 추천이고, 그 다음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므로 추천된 두 사람 누가 되어도 사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증인의 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교회의 모든 선출을 제비뽑아야 한다고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도행전〉에서만 제비를 뽑고, 그 이후에는 이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분별해서 찾는 태도입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고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며 한 일입니다.

약속하신 선물이 임하기까지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해 전념할 때 예수님의 임재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약속하신 선물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계속 세워져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온누리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해 전념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전념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고, 세워지는 일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다양성과 포용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독특하고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조화롭게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로 작동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셨다. 이처럼 성경은 다양성을 말할 때 통일성과 균형을 강조한다. 가정이나 모든 사회기관에도 다양성과 통일성이 필요하다.

반면, 사회정의의 이념에서 부르짖는 다양성(Diversity)은 항상 평등(Equality)과 포용(Inclusion)이라는 용어와 붙어 다닌다. 그들이 강조하는 DEI의 이념은 다양한 약자, 소수자 집단을 사회의 주류 집단이 평등하게 대우하고, 포용하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들의 주장과 행동을 보면 분명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이먼 르베이(Simon LeVay)는 동성애자이면서 유전학 연구를 통해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동성에 편향적 주장을 펼쳤던 게이(Gay) 신경과학자이다. 그는 LGBT 잡지에 젠더불쾌증(자신의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남녀라는 성적체성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증상)을 가진 아이들의 말을 너무 그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최소한 사춘기가 끝나기 전에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젠더주의 이념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젠더주의자들에게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가수 베트 미들러와 작가 J.K. 롤링, 이 두 여성은 모두 LGBTQ 운동의 오랜 지지자였다. 그러나 이들은 트랜스젠더이념 때문에 여성성이 손상당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고, 이후 그들의 트윗은 젠더주의자들에게 강력하고 지속적인 방식의 비난을 받았다.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는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우승한 18회 했던 여자 테니스계의 전설적 선수이다. 그녀는 1980년대 레즈비언임을 밝혀 큰 물의를 일으켰고, 지난 수십 년 동안 LGBT 권의 옹호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최근 그녀는 남성에서 트랜스-여성이 된 선수들이 여성 선수들과 경기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성소수자(LGBT) 운동선수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운동선수 연맹(Athlete Ally)’은 그녀의 발언이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고, 그녀를 연맹 자문 위원회에서 축출하고, 홍보대사 임명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정의의 이념에 의해 사회 전체의 제도나 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해야 한다.”

이처럼 트랜스젠더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젠더주의 성 혁명가들에게 공격적인 질책을 받는다. 비평한 사람들은 트랜스 혐오, 증오, 심지어 범죄자로 낙인찍힌다. 특히 LGBTQ 커뮤니티에서 이런 의견이 제기될 때 더욱 강하고 신랄한 비판을 받는다. 한 트랜스젠더 활동가는 이들의 발언에 ‘무책임한 것 이상’이라는 딱지를 붙였으며, 이는 그들 커뮤니티가 괴롭힐 공격의 대상임을 암시한다. 이후 르베이, 미들러, 롤링, 나브라틸로바는 LGBTQ 집단에서 집중적인 비판과 조리돌림을 당하고, 그들 사회에서 매장된다.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집단은 많은 소수자, 약자들을 스스로 만들어 낸다. 마르크스 이념에서 노동자와 농민으로부터, 페미니즘에서 여성, 인종주의에서 유색인종, 성 혁명 이념에서 동성애자, 소아청소년, 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가 있다. 이들은 다양한 소수자들을 양산하면서 이들이 주류 세력을 공격하도록 부추긴다. 노동운동, 페미니즘 운동, 흑인 혹은 소수인종 운동, 동성애 운동, 학생 운동 등을 거쳐 최신의 이슈가 젠더주의의 운동이다. 이들은 주류세력을 꺾을 수 있는 소수자 의제 개발을 원하고 있다. 젠더 이슈를 가장 앞세우는 이유는 만약 남자를 여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대할 수 없게 만들 수만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의 주장대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르베이의 게이 집단, 미들러나 로울링의 페미니스트 집단, 나브라틸로바의 레즈비언 집단 등 다른 어떤 소수자 집단보다 트랜스젠더 집단을 통해 주류 집단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유로 근래 미국에서 젠더 이슈가 심각하게 떠오른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사춘기 이전 어린이들의 성전환 시도가 급증할 것이고, 이것을 반대하는 부모나 의사는 개인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혐오주의자로 낙인찍히고, 차별금지법에 따라 자녀를 빼앗기거나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다.

결국, 사회정의가 주장하는 것은 획일적, 집단적 다양성이며,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며, 주류 집단이 이것을 무조건 포용하라는 뜻이다. 그들의 주장이 성경의 DEI와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라고 명령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정의를 전적으로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게 딜레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사회정의의 이념에 의해 사회 전체의 제도나 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해야 한다. 하지만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마 18:14)처럼, 내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나의 잘못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영역주권과 일반은총(5)

세계관 전쟁 시대에 ‘온누리 세계관학교’를 생각하다

신우환 장로
(서빙고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담당)

“남북통일 이슈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용조 목사의 이 말씀과 함께 2007년 10월, 성경적 세계관 사역팀 ‘온누리세계관학교’(OWA : Onnuri Worldview Academy)가 공식적으로 탄생했다. 교회·사회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확장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온누리세계관학교의 책임과 사명에 대한 공유가 필요해 보인다.

왜 이 시대를 세계관 전쟁의 시대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의 시대와 그의 삶에서 상당 부분 찾을 수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주권을 선포한 19세기 말 네덜란드는 비기독교적 사상의 물결이 사회와 교회로 매우 거세게 몰아치던 때였다. 카이퍼는 깊은 영성을 가진 탁월한 신학자일 뿐 아니라 교육자, 언론인,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선포한 영역주권 사상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 철저히 실천했다. 15세기를 기점으로 1천여 년 동안 유럽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던 그리스도교 중심사상인 ‘헤브라이즘’이 르네상스와 과학혁명 등을 거치면서 심화된 인간 이성 위주의 계몽주의와 무신론적 자연주의에 의해 급속히 위축되었다. 1789년 하나님 없는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수많은 사람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프랑스혁명은 마르크스주의와 인본주의의 결정체로써 유럽의 지성과 노동자들을 열광하게 했다. 1859년 다윈에 의하여 발표된 생물학적 진화론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합리적으로 벗어나는 강력한 당위성을 부여했다. 종교적으로는 이성을 앞세운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 있었고, 많은 신학교가 이를 가르쳤다. 국가가 교회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목사의 부임을 국가위원회가 결정했다. 소위 기독교가 모든 사회를 지배해오던 크리스텐덤(Christendom) 시대가 저물어 가고,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가 본격화되던 암울한 시기라 볼 수 있다.

작금의 한국 상황은 순결한 영성과 함께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군사들의 출현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미 한국 사회는 비성경적 사상과 문화가 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를 넘어서서 비성경적 사상에 기반한 제도와 법제화 시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미 은밀하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에게만 한국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필요하다.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여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 사상의 흐름을 규명하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것이다.”(2022년 12월 31일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온누리세계관학교는 이러한 총성 없는 세계관 전쟁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를 키워내는 사관학교다. 온누리세계관학교는 두 가지 비전이 있다. 첫째, 성경적 세계관으로 훈련받고, 세상의 각 영역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교육함(마 6:10)이다. 둘째, 성경적 변증 능력을 고양해서 세속적 세계관의 유혹과 사상의 흐름 속에서 신앙인을 보호함(요 17:15)이다. 대학가에서 기독교 동아리들에 의한 전도율이 이미 한 자리 숫자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교회 차세대의 미래는 그들에 대한 철저한 성경적 세계관 교육에 달려있다. 미국의 한인 교회에서 청소년들의 교회 이탈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기성세대의 삶과 기독교 세계관의 이중성’이라는 결과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 성인 기독교인 6%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보도 역시 경종을 울릴 만하다. 나머지 기독교인들의 60% 이상이 “성령의 존재가 불확실하며, 모든 종교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충격적 의견도 있다. 이와 달리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6% 성도들은 대부분 신앙과 생활방식의 일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었다. 세계관 사역이란 신앙과 삶의 일치됨을 추구한다. 현대사회는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성경적 세계관이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시대이다. 그것이 세상의 원래 모습이다. 그러므로 세계관 사역이란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에 철저하게 몰든 ‘현대사회’라는 거대한 미전도종족을 향한 선교사역이라 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가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인 것처럼, 세속적 세계관에 몰든 이 세상을 향한 새로운 형태의 선교에도 목숨을 거는 책임과 엄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자녀의 마음으로 풍당! - 비행과 일탈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최은영 교수
(햇볼트리니티 신학대
학원대학교)

많은 청소년이 날이 갈수록 음주와 흡연 유혹에 더 쉽게, 더 일찍 빠져들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가출, 유흥업소 출입 등 일탈의 늪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75.7%가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청소년 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흡연자가 50만 명에 이른다. 청소년 가출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가출신고센터에 접수된 청소년만 2만 명에 육박한다. 우리의 미래이자 소중한 자녀들의 비행과 일탈에 대해 살펴보자.

우울하고 불안한 아이들과 비행 및 일탈을 일삼는 아이들의 차이점이 있다. 비행 및 일탈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우울하고, 불안한 아이들이 가지지 못한 감정이 있다. 바로 ‘힘’이다. 독립심, 호기심, 강함 등을 가진 아이들이다. 자신의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이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고, 싸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는 아이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점이 있다. 우울하고 불안한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느끼는 반면, 일탈 및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하고, 느끼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아두면 좋겠다.

먼저 가출 청소년들부터 살펴보자. 가출하는 아이들의 유형에는 ‘데모형’, ‘압박형’, ‘불편감형’, ‘공허감형’이 있다. 데모형의 아이들은 자신의 힘들음을 알아달라는 표시로 가출한다. 압박형은 집에 있는 게 너무 괴로운 아이들이다. 집에서는 숨이 안 쉬어지는 아이들이다. 불편감형 아이들은 부모의 재혼이나 간섭 등 여러 이유로 불편함을 느껴서 집을

떠난다. 공허감형의 아이들은 집에 들어가도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가정을 안락처로 삼지 못한다. 가출 청소년들은 불편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화나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집을 떠난다. 집만 떠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흡연 및 음주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은 소속감이 필요해서 담배와 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래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시작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채우지 못한 애정을 친구들과의 소속감에서 채우려 비행 및 일탈의 늪으로 들어간다.

부모와 교회가 일탈 및 비행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첫째, 그 아이들의 마음을 물어봐야 한다. 아이들이 일탈과 비행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뭐가 화났는지, 불만인지, 결핍됐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물어봐야 한다. 아이들에게 “너는 어떤 부분이 채워졌으면 좋겠니?”,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니?”,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 “부모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라고 물으면서 마음을 살펴줘야 한다.

둘째, 사과해야 한다.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주지 못한 것, 아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을 사과해야 한다. 아이들은 사과를 통해 부모의 마음을 확신하게 된다.

셋째, 그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것을 물어봐야 한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는지, 생활하며 충족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한다. 사과를 받은 아이들은 마음이 풀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넷째, 작은 것부터 바꾸려고 실천해야 한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집에 일찍 와 주세요”라고 요청한다면, 일찍 들어오면 된다. 자녀가 “내게 욕박지르지 마시고, 나를 귀한 자식으로 대해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귀한 자식으로 대하며 안아주면 된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1~3).

〈마태복음〉 5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이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아왔다.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이 혼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누군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그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나와줬기 때문에 그들이 치유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일탈 및 비행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힘든 상황을 알아주고, 손을 잡고 나와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줄 어른들이 필요하다. 마음을 읽어주고, 손을 잡아준 이들 덕분에 범죄의 유혹, 일탈의 늪에서 빠져나온 아이들은 ‘내 마음이 가난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불안을 힘과 객기로 다스리려 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스스로 결핍된 마음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일탈과 비행으로 쌓인 분노가 눈물이 되어 흘러야 한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애통한 눈물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 9편 비행·일탈’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독후감 대회’ 수상작

나는 하나님 최고의 작품!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다. 그래서 창조신앙이라는 단어가 어렵고 복잡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게 궁금하던 중에 〈어린이를 위한 창조과학 이야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에서 나는 시온이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만났다. 창조신앙을 통해 구원받은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내가 특히 관심이 있었고, 궁금했던 이야기는 이 책 2장에 있는 ‘우리 몸의 신기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람’, 곧 ‘나’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했다. 나의 몸도 하나님의 작품이었는데 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내 친구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엄마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럴 땐 다시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났냐고요!”

늘 궁금했는데 이 책을 통해 나의 탄생과 나의 몸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창 2:7).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예

쁜 아이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다짐한다.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더 해야겠다고 말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김송윤이다. 그리고 현재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김송윤 학생
(서빙고 유년2부)



62.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우리 가족을 위한 ‘작은 책장’



〈날마다 축복해〉
우경신 저 | 두란노 |
21,000원

‘자녀를 잘 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다. 크리스천 부모라면 거기에 더해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는 원대한 꿈을 꾀다. 그런데 쉽지 않다. 이 고민의 해답을 우경신 전도사의 책 〈날

마다 축복해〉에서 찾을 수 있다.

우경신 전도사는 이 책에서 “아이는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노래한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수 안에 거하는 부모, 말씀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비로소 성경적 자녀 양육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날마다 축복해〉는 신앙의 교리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서 핵심 구절 365개를 뽑고,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기도문을 작성했다. 쉽고, 짧고, 재미있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Family Time’이라는 코너를 구성했다. 성경의 핵심 교리로 드리는 3분 기도는 쉽고 간단하다. 날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로잔 운동의 성격과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전망

로잔대회의 여섯 가지 성격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명예교수)

‘로잔 운동(The Lausanne Movement)’은 ‘세계복음주의 연맹(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과 함께 세계 복음화 운동의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다.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의 에큐메니컬 선교 운동과 다른 복음적 전도를 일차적으로 강조하는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다. 로잔위원회가 추진한 세계 복음화 운동은 21세기 후기 기독교 시대에서 첨단 과학 기술주의의 강력한 세속주의와 이에 감염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약화되어가는 기독교 선교에 활력이 되고 있다. 급속히 성장하는 비서구 교회들이 포스트 기독교 시대를 맞아 노쇠해진 서구 교회를 능가하고, 서구 교회가 중심이 되어온 세계 복음화의 리더십을 승계하면서 아시아 교회, 특히 한국 교회의 리더십을 세계 교회가 기대하고 있다. 2013년 WCC 부산대회에 이어 제4차 로잔대회가 아시아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섬김을 보여주는 선교사적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한국 교회와 복음주의 신자들 가운데 크다.

기독교 선교의 새 동력 제공

로잔대회의 성격은 크게 여섯 가지다. 첫째, 20세기 지구촌에 기독교 선교의 새 동력을 제공했다. 1차 로잔대회는 복음주의자들의 선교 운동으로 미국의 빌리 그래함(Billy Graham)과 영국의 존 스토틀(John Stott)를 중심으로 해럴드 오킨가(Harold John Ockenga), 칼 헨리(Carl Henry), 프랜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피터 바이어하우스(Peter P. Beyerhaus) 등과 같은 복음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1974년 태동하였다. 로잔대회는 WCC와 전도위원회(CWME)가 주관한 1973년 방콕대회가 ‘오늘의 구원(Salvation Today)’이라는 주제로 모여 폭넓은 구원의 개념을 논의할 뿐 아니라 ‘선교의 모라토리움(Moratorium for Missions)’을 선언한 것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반응이었다.

그 전 복음주의자들은 1961년 ‘휘튼대회(Wheaton Conference)’, 1966년 ‘베를린대회(Berlin Congress on Evangelism)’로 모여 복음주의 선교와 에큐메니컬 선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968년 ‘스웨덴 옉살라대회’가 ‘인간화(humanization)’를 WCC의 공식 선교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을 보면서 피터 바이어하우스가 주도한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15명이 1970년 ‘기독교 선교의 근본적 위기에 관한 프랑크푸르트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모여 20세기 복음주의 선교의 동력을 찾고,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재발견하고자 하였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150개국 2,700여 명의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위한 모임으로 개최되었다. 이 모임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한 기독교 선교의 동력을 소진한 1970년대 기독교 선교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1차 로잔대회에서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이 채택되었다. 이후 로잔 운동은 1989년 ‘필리핀 마닐라 제2차 로잔대회’와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 제3차 로잔대회’로 이어졌고, 2024년 ‘서울 제4차 로잔대회’로 이어지고 있다.

선교 지평을 넓힌 ‘총체적 선교’

둘째, 로잔 언약은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 개념으로 복음주의 선교 지평을 넓혔다. 로잔 운동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Calling the Whole Church to Take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을 목표로 한다. 로잔 언약은 ‘복음 전도(evangelism)’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불가분의 짝으로 균형 잡는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 운동이다. 로잔 운동은 1974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 1989 마닐라 선언문(Manila Manifesto), 2010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 Town Commitment)이라는 로잔 문서들을 통해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는 ‘총체적 선교’를 제시해 복음주의 선교의 지평을 넓혔다. 남미 두 명의 라틴 아메리카 신학자인 사무엘 에스코바(Samuel Escobar)와 르네 빠디아(Rene Padilla)가 ‘사회정의(social justice)’라는 개념을 선교에 포함하지는 제안으로 수용한 것이다. 1989년 마닐라 선언은 ‘A. 온전한 복음(The Whole Gospel)’, ‘4. 복음과 사회적 책임(The Gospel and Social Responsibility)’에서 로잔 언약을 재확인하고 있다.

“우리가 개탄하는 악은 제도화된 폭력, 정치적 부패, 사람과 땅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착취, 가정 파괴, 낙태, 마약 유통, 인권의 유린과 같은 파괴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 참된 선교는 언제나 성육신적이어야 한다. 참된 선교를 위해서는 겸허하게 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의 사회적 현실, 비애와 고통, 그리고 압제 세력에 항거하며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그들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전도종족’과 ‘10/40 창’

셋째, ‘미전도종족’과 ‘10/40 창’ 개념이 소개되었고, 타 문화권 선교의 우선 사역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1974년 1차 로잔대회에서 미국 폴러신학교 선교학 교수 랄프 윈터(Ralph Winter)의 ‘미전도종족 복음화’와 ‘전인적 선교’의 새로운 두 개념이 부각되었다. 로잔대회 기조연설에서 랄프 윈터는 선교학적 중대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 개념을 소개했다. 윈터는 타 문화권 선교(cross-cultural mission)가 교회의 우

선적인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나 모국어로 된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 수천의 민족 집단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했다.

“인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27억 이상의 인구가 아직도 복음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토록 많은 사람을 아직도 등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는 우리와 온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판이다”(로잔 언약 9항).

1989년 필리핀 마닐라 제2차 대회에서 루이스 부쉬(Luis bush)는 1974년 미전도 종족에 대한 랄프 윈터의 강연을 기반으로 대다수 미전도 종족이 사는 지역, ‘10/40 창(窓)’(10/40 Window)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10/40 창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역을 통틀어서 일컫는 개념이다. 이곳의 범위는 (이슬람 문화가 집결된) 아시아 지역 대부분 및 북부 아프리카를 포함하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제2차 로잔대회는 선교 대상으로 ‘미전도종족’ 전도와 ‘10/40 창’ 개념을 제안해서 복음 선교의 구체적인 대상과 전략을 제시하였다(마닐라 선언문 2부 11항). 제3차 로잔대회의 케이프타운 서약 2부 4항에서 ‘미전도(unreached)종족과 미접촉(unengaged)종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헌신된 신자들의 복음주의 운동

넷째, 로잔 운동은 교단 중심적인 운동이 아니라 헌신된 신자들이 모여 이루는 복음 운동이다. 세계 복음화라는 공동의 과업을 위해 복음주의자를 하나로 결집하는 일이다. 로잔위원회는 WCC처럼 회원 교회나 단체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구 혹은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 (Movement)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로잔 정신(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계복음화 하자)에 동의하는 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헌신된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들이 협력해서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특별한 조직이 구성되어 이끄는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 헌신해 온 참여자들이 동역하는 복음주의 운동이다.

로잔 운동은 복음주의자들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해 주었다. 로잔위원회의 지도하에 전략회의 협의회의(consultation)를 통해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주요한 이슈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유사한 비전을 가진 복음주의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선교 실천에서 중요한 목록들을 제시해 주었다. 로잔 운동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완성하는 일에 엄청난 동기부여와 촉진제가 되어주었다. 공통의 비전을 가진 자들을 묶어주었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했으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복음화가 가능함을 믿도록 도움을 줬다.

성경적 선교의 원리

다섯째, 로잔 운동은 ‘하나님 선교(missio Dei)’를 ‘그리스도 선교(missio Christi)’로서 하고자 하였다. 하나님 선교의 개념을 명료히 하였다. 혼합주의 선교에서 복음주의 선교로 정체성을 재정하였다. 로잔 운동은 1952년 WCC 빌링겐대회에서 세속주의적 의미로 사용된 요한네스 호켄다이크(Johannes C. Hoekendijk)의 인본주의적 에큐메니컬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하나님→세상→교회) 개념을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컬 하나님의 선교(하나님→교회→세상) 개념으로 수정했다. 1974년 로잔대회는 사도적 선교 원리를 벗어난 WCC 소속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자 호켄다이크가 해석한 인본주의적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복음주의적 선교를 제시한 대회였다. 선교의 인간화, 세속화, 종교혼합주의와 사회 구원을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WCC 에큐메니컬 선교에 대하여 ‘성경적 선교의 원리’를 재전명하였다.

로잔대회는 전 세계의 선교 주체들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선교를 위한 15가지 항목의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을 채택한 중요 대회였다. 15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목적(The Purpose of God)’, ‘2. 성경의 권위와 능력(The Authority and Power of the Bible)’, ‘3.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The Uniqueness and Universality of Christ)’, ‘4. 전도의 본질(The Nature of Evangelism)’, ‘5.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Christian Social Responsibility)’, ‘6. 교회와 전도(The Church and Evangelism)’, ‘7. 전도를 위한 협력(Cooperation in Evangelism)’, ‘8. 교회의 선교 협동(Churches Evangelistic Partnership)’, ‘9. 복음 전도의 긴박성(The Urgency of the Evangelistic Task)’, ‘10. 전도와 문화(Evangelism and Culture)’, ‘11. 교육과 지도력(Education and Leadership)’, ‘12. 영적 싸움(Spiritual Conflict)’, ‘13. 자유와 핍박(Freedom and Persecution)’, ‘14. 성령의 능력(The Power of the Holy Spirit)’, ‘15. 그리스도의 재림(The Return of Christ)’

아시아 교회와 한국 교회의 역할

여섯째, 아시아 교회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대회 그리고 올해 제4차 로잔대회를 통해서 아시아 교회는 세계 교회를 섬기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아시아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개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 오(Michael Oh) 목사가 세계로잔 운동의 대표요,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가 한국로잔위원장과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유기성 목사가 준비위원장으로 제4차 로잔대회를 이끌고 있다. 한국 교회가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아시아 교회를 하나로 모으는 동원자가 되고, 겸손히 섬기는 기회가 된 것이다(계속).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사람들 - 그 마지막 이야기

작은예수로 변화된 40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될 사람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이하 새벽기도회)가 대장정을 마쳤다. 그만큼 은혜도 풍성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성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성도, 전도를 실천한 성도들이 가득하다. 작은예수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소개한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최훈 집사(동대문중앙공동체)는 말씀의 힘으로 지친 삶을 회복했다. 지금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새 힘으로 하루 하루를 힘차게 보내고 있다.

“이번 새벽기도회에서 하나님이 제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었는데,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김종임 성도(여의도제일교회)는 온누리교회 SNS청년부에 소속된 자녀를 따라 새벽기도회에 왔다. 자발적으로 새벽기도회에 가는 자녀가 부럽기도 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무척 감사했다.

“자녀와 함께 새벽기도회에 올 때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매일 새벽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뤘습니다. 그래도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회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 그리고 변화

이숙자 집사(강남A공동체)는 이번 새벽기도회에서 선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그리고 어디서나 선교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 비결은 기도였다.

“새벽기도회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도 더욱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새벽기도회에서 선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디서나 선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김정숙 권사(이촌공동체)는 특별한 변화를 목도했다. 바로 남편의 변화였다. 역시 하나님은 풍성하고 깊게 응답하셨다.



“새벽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남편을 위해, 남편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남편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남편이 ‘신앙 언어’를 낮설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출근하는 제게 매일 새벽기도회에서 들은 말씀으로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벅찬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수진 성도(하모니공동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마음이 넓어졌다. 아직 예수님을 모른 사람들도 마음에 품었다.

“그동안 제 신앙생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도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삶의 모든 장면에서 ‘전도’

이군자 권사(분당A공동체)는 이번 새벽기도회에서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자랑

했던 그때 그 마음을 되찾았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도에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벽기도회에서 그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전도대상자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수제 집사(강남B공동체)는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는 내내 독거 어르신들이 떠올랐다. 독거 어르신들의 외로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번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제 마음에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전도의 열정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장례지사로 일하면서 봤던 고독사는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독거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오직 전도에 힘쓸 것입니다.”

박덕순 집사(서초A공동체)는 새벽기도회를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달콤한지 앞으로도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다.

“전도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 전도대상자들을 교회에 초청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한 줄 소감〉

• “선교하고자 하는 꿈을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게 다시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석태월 권사(도곡공동체)

• “하나님께서 새벽기도회를 통해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 박선희 권사(송파B공동체)

•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한발 두발 내딛기만 하면 나머지 다음 순종의 걸음은 친히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지수 자매(SNS청년부)

• “선교사님들의 소식과 간증을 들으면서 하늘 보좌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놓인 우리 자녀들과 차세대들을 위해, 온누리교회에 주신 소명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 이지원 권사(강남E공동체)

•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 선혜린 성도(이수공동체)

• “담대하다는 것은 ‘겁이 없고 용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올해에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 세상에서 주눅 들지 않고, 용감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김소희 성도(양재온누리교회)

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표어처럼,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전에는 전도하는 게 어렵고, 소명이 있는 사람만 전도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부터 앞장서서 삶의 모든 장면에서 전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 1월 13일 토요일

기꺼이, 더 나아가 즐거이

〈베드로전서〉 1:1~2, 21~23

정한호 목사

크게 세 가지 물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왜 순종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데 5개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도시들은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헬라화’가 진행된 지역입니다. 이른 시기에 복음이 널리 전해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그곳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에 붙들려 살려고 했던 구별된 그리스도

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유혹과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교회와 크리스천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입니다. 순종은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세상을 이길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리에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입니다.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듣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듣는 척하는지’ 대화해보면 즉각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진정한 순종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에 억지스러움과 강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원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변함없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누구보다 삶에서 진리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변함 없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길은 오직 변하지 않는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이 순종의 기준이 될 때, 말씀이 순종의 방법이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 1월 15일 월요일

다시 찾는 기쁨

〈누가복음〉 15:31~32

강부호 목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서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은 기쁨을 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큰아들이 화가 나서 잔치에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분노한 이유는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뻐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와 기뻐하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받아들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의 분노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집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특별대우를 해줘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들은 아버지가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시절을 진정으로 복으로 여기십니까?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분이라면 그분과 동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 돼야 합니

다.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복으로 알 때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특별히 베푸시는 잔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마음을 이해할 때 전도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릴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불평하며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큰아들을 달랬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알게 합니까?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 사랑했습니다. 큰아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다시금 찾아와 말씀하실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을 때 기쁨으로 참여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겹세마네까지 갔지만, 예수님이 기도

하는 내용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옆에서 졸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정말로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두 아들 모두 아버지께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살면서 근심을 안겼습니다. 큰아들은 바른 생활함으로써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큰아들의 모습입니까? 작은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두 아들의 모습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 일에 헌신할 때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진하십시오.

◆ 1월 16일 화요일

사람을 살리는 어부들

〈마태복음〉 4:18~20

장경문 장로

저는 인천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들은 환자들 교회에 옵니다. 전도해서 교회에 가신 분들을 기록했더니 88명이나 됐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깨달은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전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듣지 않을 것 같았는데, 복음을 듣더니 그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습니다. 접수처 직원과 함께 전도하기도 했습니

다. 전도는 동역입니다. 전도는 크게 2단계로 이뤄집니다.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는 단계와 복음이 심기는 단계입니다. 교회끼리 동역할 수 있고, 순끼리 동역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과 그들이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계속 전도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때로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상처받기도 합니

다. 그러나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전도하면 내 안에도 기쁨이 넘칩니다.

둘째, 전도는 순종하는 사람이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온누리전도학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전도는 순종입니다. 지난 송구영신예배에서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부르심에 순종할수록 대담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셋째, 전도를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때로 전도를 한 사람도 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환자들만 생각하다가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선교사는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오는 사람입니다. 잠깐 머물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병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믿음이 좋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는 전도를 도와주는 사역팀이 있습니다. ‘온누리전도학교’와 ‘전도폭발훈련팀’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1월 17일 수요일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로마서〉 10:13~15

김홍주 목사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일단 보내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들고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보내는 교회와 복음 전하는 선교사, 성령님의 역사가 어우러져야 복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올해 9월 제4차 로잔대회가 열립니다. 로잔대회는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고, 전도와 선교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다시 일깨

워 주시는 소중한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왜 로잔대회를 소망하고, 로잔대회를 위해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로잔대회는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는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왜곡된 복음이 교회 안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는 그동안 수많은 잘못된 복음과 싸

워 왔습니다. 1974년 로잔대회는 잘못된 복음이 우세하던 시대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로잔대회는 복음의 총체성을 회복하는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영역 가운데 구원과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교회의 울타리에만 갇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로잔대회는 이 부분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로잔대회는 세계 복음화를 다시 촉진하는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로잔운동이

있기 전에 선교 분위기는 ‘선교 모라토리엄’이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반대하고, 선교를 중지하고,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런데 1974년 제1차 로잔대회에서 랄프 윈터(Ralph D. Winter) 박사가 ‘미전도종족 선교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 다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세계 선교 운동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20억 명 이상의 영혼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 제4차 로잔대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영적인 파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가진 증인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불이 붙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1월 18일 목요일

보냄 받은 사람들

〈요한복음〉 20:19~23

이재훈 위임목사

교회를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너리 처치(Missionary Church)’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선교사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소명으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미션너리 처치를 ‘A, B, C’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Apostle’, 보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성도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입니다. B는 ‘

Baptism’, 회심한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통해 처음 예수님을 믿은 이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입니다. C는 ‘Cell’, 순에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예배만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인가?’ 아니면 ‘건강한 소그룹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가?’입니다. 이 A, B, C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메인테넌스 처치(Maintenance Church)’입니다. 교회 자체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관심보다 자신에게 관심이 더 있습니다. 메인테넌스 처치도 A, B, C로 정리했습니다. A는 ‘Attendance’, 예배참여 인원입니다. B는 ‘Building’, 예배당 건물입니다. C는 ‘Cash’, 헌금입니다. 메인테넌스 처치는 이 A, B, C를 중요한 지표로 생각합니다.

메인테넌스 처치의 많은 교회가 세 번째 교회가 됩니다. ‘뮤지엄 처치(Museum Church)’입니다. 과거 문화를 보존하려고만 하는 교회입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과거 역사밖에 없고, 과거에 집착합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가 뮤지엄 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뮤지엄 처치의 A, B, C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Apathy’, 지상명령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B는 ‘Bargain’, 이해득실을 따지고 내부중심적입니다. C는 ‘Conflict’, 지속적인 갈등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미션너리 처치(Missionary Church)’입니다. 미션

너리 처치는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가 예배, 제자훈련, 공동체를 모두 자극하고, 촉매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선교밖에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많은 선교단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선교단체에 후원금만 보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교회 없는 선교’와 ‘선교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단체를 통해 사역하지만, 선교단체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와 선교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델이고, 선교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모델입니다. 온누리교회가 두란노국제선교회, CGN, NGO 더멋진세상 등 여러 선교기관과 함께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소중한 영적 전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1월 19일 금요일

예수 구속과 선교의 주

〈누가복음〉 24:46~49

권성찬 선교사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속적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누리면 됩니다.

둘째, ‘선교적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사명은 구속적 사명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뤄가시는 일입니다. 선교적 사명은 시대마다 제자공동체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선교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두 가지 극단이 생깁니다. 하나는 선교를 교회가 감당해야 하

는 일, 즉 사람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과거 서구의 선교가 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더는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인간의 전략과 방식을 통해 이루는 과업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선교를 하나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비서구 선교에서 이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재 선교의 방향은 서구에서 비서구로, 선교사 중심 사역에서 현지인 중심 사역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선교의 전환기를 맞이한 이때 한국 교회의 역할을 고민해야 합니다. 선교를 사람의 일로 여겼던 서구의 선교 방식을 교정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무시하는 비서구의 선교 방식을 도치시키는 일을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깊은 성찰과 뜨거운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48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증인 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갖지 못하고, 선교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적 선교는 없습니다. 구속적 사명과 동시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교가 일어나야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을 깨달아졌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막 3:7~10)

〈마가복음〉 3장 7~10절에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 모습이 나온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준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과 행동을 보면서 이를 본받아 예수님 닮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따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7절). 뒤로 물러나려고 해도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앞에 나서더라도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전자에 해당한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셨다는 점이 요인 중 하나다. 예수님은 세리들, 죄인들과도 같이 식사하신다(막 2:15). 지체 높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아니라 당시 최고 엘리트였던 랍비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자들을 제자로 맞이해 주신다(막 3:13~19). 베드로란 이름,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이려면 그 제자를 잘 알아야 하고, 인격적인 관계여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진정한 사제 관계를 형성

하신다.

중풍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지붕을 뜯은 친구 네 명의 행동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무례해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과 열정을 귀하게 여기셔서 강론과 치유가 중간에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성육신 자체가 수평적 관계의 대표적 사건 아닌가? 우리에게도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평적으로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울이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라고 이름을 부른다.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맺었다’는 점은 데오빌로가 얼마나 누가를 수평적 관계로 존중했는지를 방증한다.

둘째, 존재와 교훈에 몰두해야 한다(8~10절). 병 고침을 받으려고만 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본질적인 가르침을 들을 것인가? 물론 병이 든 사람에게는 우선적인 질병 치유가 필요하다. 당장 배가 고파서 사람에게는 아무리 주옥같은 말씀을 들려줘도 소용이 없다. 노숙인들에게 줄 식사를 준비해 놓은 채 설교를 2시간 한다면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필요를 채우기에만 급급한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병 고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건강은 정말 소중하고 필수적이다. 하지만 육체적 건강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영적 빈곤이 육체적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과 내면의 고갈이 육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예수님은 병만 고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셨고(막 2:2), 큰 무리에게 가르치셨다(막 2:13).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병 고침에 있었다. 예수님의 교훈에 관심이 덜 했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예수님을 자기 병 고치는 데 사용되는 수단,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킬 때가 많았다. 자기 병 고침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작은 배를 직접 준비하셔서 자신의 안위를 직접 챙기셔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 수준에 머물지 말고, 더 본질적인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 존재 자체에 감동할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교훈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강현 목사
(양재A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김알렉산더 집사님을
위해서!

안산M센터 러시아공동체 김알렉산더(Kim Alexander)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해주십시오. 지난 12월 말,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수술받았습니다. 현재 치료받고, 조금씩 회복하는 중입니다. 김알렉산더 집사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이후 걷는 것과 말하는 게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만져주셔서 걷는 것과 말하는 게 회복되어 일상을 되찾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의 기억력도 속히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김알렉산더 집사님의 사위가 김포에서 러시아 공동체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포에 있는 러시아 이주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알렉산더 집사님이 온전히 회복되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유세르게이 목사(안산M센터)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1월 22~28일

〈마가복음〉 8:14~10:16



본의 제자 됨을 묵상하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신다.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이 마음의 둔함을 책망하시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상기시키신다. 예수님은 벳새다에서 한 시각장애인을 두 번에 걸쳐 안수해 고치신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답한다. 장차 당할 고난에 관한 말씀에 베드로가 항변하자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신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교훈하신다.

묵상포인트 2: 세상 사람은 더 높은 자리를

묵상포인트 1:

제자도의 시작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자다.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히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묵상하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희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신다. 예수님은 엘리야,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 것을 부활 때까지 전하지 말라고하신다. 산 아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를 한탄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신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인자가 당할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두려워한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 중에서 끝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신다.

묵상포인트 3: 예수님은 작은 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 그들을 실족시키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비록 사람 눈에 연약해 보이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묵상하자.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금했다고 하자, 예수님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를 위하는 자’ 이기에 금하지 말라고 하신다. 믿는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행벌이 있다. 또한 손과 발과 눈이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없애서라도 영생에 들어가야 한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 묻자 예수님이 부부가 한 몸이기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답변하신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교훈하신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하고 나의 입으로 고백하자. ▶날마다 나 중심적인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힘쓰자. ▶오직 기도만이 영적인 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위로부터 담대함과 능력을 부여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에 힘쓰자. ▶내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과 섬김의 종으로 낮아져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가정, 일터, 교회에서 돕고 섬겨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 돌아보자.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제거할 죄가 무엇인가? 죄와 담대히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하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작은 자들, 어린이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더욱 존귀하게 여기자.

/ 〈생명의 삶〉 편집부

멘토가 멘티에게

크리스천의 건강한 소비 습관

“크리스천 청년이 가져야 할 건강한 소비 습관이 무엇인가요? 건강한 소비 습관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건강한 소비 습관은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소비하는가?’다.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물과 돈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바를 명확하게 점검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돈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재화다. 그 영향력이나 존재감이 정말 크다. 물론 돈 이외에도 명예나 건강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돈은 성경이 각별하게 언급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도 자칫 소홀히 다룬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렇기에 몇 가지 점검을 해 보는 게 필요하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과 거의 동급의 경쟁자로서 돈을 언급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

만 악의 뿌리라면서 돈에 대한 우상화를 경계하고 있다. 크리스천은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거나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각별하게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

둘째, 소득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셨다. 이를 순종했을 때 명확하게 우리의 창고를 채워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은 왜 십일조를 명하셨을까? 과연 십일조의 명령을

을까? 온전한 십일조를 드린다면 돈을 하나님보다 낮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믿을 때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가지 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태도를 정했을 때 그 여분의 재물은 적절히 사용하면 된다. 다만 성경에서 ‘재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기에 자신의 소비지출 비중

대로 소비하고, 자유롭게 사용한다. 필요에 대한 소비 외에 타인의 필요에 아무 대가 없이 부응하는 지출을 일정 부분 가져가려 한다. 식사를 섬기고 싶은 분이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과 차를 마신다든지, 조그만 선물을 한다든지,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한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고아나 과부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기에 소비의 일정 부분은 항상 나의 필요가 아닌 타인의 필요에 지출하려고 한다. 그 범위는 대략 전체 소득의 30분의 1 정도다. 이 범위 또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건강한 소비 습관을 점검하기 전에 먼저 재물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의 태도와 인식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확인하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부합하도록 재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호 멘토
(허브대학부)

“재물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소비습관을 점검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할까?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십일조에 관한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일도 있지만, 내심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듯하다. 십일조를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접근보다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방법이 십일조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

을 따져보면 어느 곳에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만약 소비지출 구성이 특정 영역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면, 자신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크리스천의 재물 사용에 합당한 지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5살 이후 철저히 십일조를 지키고 나서 나의 소비에 치우침이 없게 되었다. 어떤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편의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정서적 연결감

일은 잘하는데 인간적으로 따뜻함이 없는 사람, 일은 다소 실망스럽게 하지만 인간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 일하고 싶은가? 사회생활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인간적으로 따뜻해도 일을 잘 못하는 동료와 함께 일해야 하면 치러야 할 대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관계에서는 인간적 따뜻함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매일 함께 생활하고, 평생 같이하는 가족관계에서 인간적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고, 일에만 몰두하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보다 불편한 일이 없을 것이다.

정서적 따뜻함과 인격적 부드러움은 부부에게 있어야 할 온기이고, 가족에게 꼭 필요한 양분이기에 부부와 가족관계에서는 정서적으로 따뜻함을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 정서적으로 가족이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을 때 건강하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가족은 좋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긍정적인 정서적 연결감이 끊어진 부부 관계를 종종 보게 된다. 누구나 따뜻한 정서가 필요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계속해서 사랑과 인정, 칭찬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삶에서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정서적 단절은 거절과 단절 형태로 나타난

다. 혼자 있는 신생아가 계속 우는 이유는 자신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지, 분유를 먹여야 할지, 아니면 방이 너무 더워서 헐든지를 양육자가 확인하고, 말하지 못하는 신생아의 필요를 적절히 채워 주면 비로소 행복하게 잠들 수 있다. 아이의 필요들을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아이는 정서적 만족감을 얻게 된다. 자신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을 충분히 해결해 주고, 채워 주는 양육자와 깊은 정서적 연결감을 갖게 된다. 하지만 울고 괴로워하는 아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방치된다면 거절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양육자가 있어도 자신의 필요에 전혀 민감하지 않고, 채워 주지 않는 것에서 오는 거절감과 단절감을 느낄 수 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고, 수용하며, 정서적으로 충분한 연결감을 제공해주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다. 부부는 늘 정서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끊어져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서적 연결감은 관계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친밀감 등으로 나타난다. 친밀감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형

성하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힘들어한다.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재경험하는 유사성을 낚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생활에서도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고, 가족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다.

어린 시절 부모와 좋고, 행복한 경험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녀와 행복하고 좋은 경험을 통한 정서적 친밀감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특히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무겁다면 먼저 자신의 과거 모습을 살펴보자. 어린 시절 부모와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생각해 보자.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감정적으로 만족감을 경험했는지,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연결감이 무시된 채 역할만 강요당하면서 살았는지 알아보자. 이 작업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특히 부족한 감정과 정서적 필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적 수월하게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부부는 정서적 연결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관계다. 자신의 결핍된 주 감정이 공포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공포의 감정을 충분히 나누면서 정서적 연결감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이 경험하는 주 감정이 불안이라면, 불안을 충분히 나누면서 부부가 정서적으

로 연결됨을 느낄 수 있다.

부부가 정서적인 연결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따뜻한 감정을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게 기본이다. 부부관계에서 정서적 연결감보다 정서적 단절감이 익숙하지는 않은지 살펴보자. “아니”, “틀렸어”, “말도 안 돼”, “그러면 그렇지”, “말하기 싫어”, “말해봤자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아”라는 식으로 거절과 단절의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말로 배우자와 자녀와 대화해 보자.

물론 적절한 수준이 필요하다. 정서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는 게 집착하는 관계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한겨울 따뜻한 물 한 잔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평온함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그 온수에 열을 더 가하면 뜨거운 물 한 잔이 되어서 데이는 고통을 받는다. 집착하는 뜨거운 관계가 아닌 한겨울 따뜻한 물 한 잔처럼, 부부와 가족관계에서 긍정적인 정서적 연결감이 순환되도록 노력해 보자.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지난 14일 누리사랑부의 지체들이 모여 3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예배공동체”

누리사랑부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성인 지체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축하하는 감사예배를 지난 1월 14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드렸다. 누리사랑부 창립 30주년 감사예배는 이자형 장로(누리사랑부 담당)의 기도, 박종길 목사 축사, 윤형주 장로 찬양집회, 김요성 목사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찬양집회에서 윤형주 장로는 “하나님과 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누리사랑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김요성 목사(장애인사역본부장)는 “지난 30년 동안 누리사랑부가 아름다운 예배공동체를 이룬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누리사랑부 지체들과 함께 창립 40주년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다

짐했다.

이강혁 목사(누리사랑부 교육목사)는 “누리사랑부의 지난 30년을 돌아보면서 사랑을 더 많이 나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누리사랑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전의 꿈꾸고, 그것을 완수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서빙고 꿈아이놀이터 교사 모집

‘서빙고 꿈아이놀이터’ 교사를 모집한다. 데코, 찬양, 반주, 음향, 소그룹 운영, 자료 제작 등의 달란트를 가진 성도가 대상이다. 꿈아이놀이터 교사 모임 및 예배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2층 꿈아이홀에서 한다.

‘꿈아이놀이터’는 24~40개월의 영유아의 신앙성장을 돕는 신앙교육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8877-3584

64기 INTO 부모교실 1월 25일까지 참가신청

64기 INTO 부모교실이 1월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열린다. 차세대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예비 부모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1월 25일까지 홈페이지(www.into7.net)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64기 INTO 부모교실에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는 누구인가?’, ‘정육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9291-8384

‘스토리바이블 어린이 성경 읽기’

2월 17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스토리바이블 어린이 성경 읽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등학교 3학년 부터 예비 중학생이 대상이다. 2월 1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5천 원이다. 보호자도 함께 등록할 수 있다.

문의: 02-2078-3437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찾습니다!

〈온누리신문〉 이메일이나 전화 제보

〈온누리신문〉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찾는다. 매주 공원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 헌혈로 생명을 나누는 성도, 이주민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날리는 성도, 입양 및 위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하는 성도 등 그

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 소개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온누리신문〉 메일(hha0@onnuri.org)이나 전화(02-6959-0001)로 알려주면 된다.

문의: 02-6959-0001

두란노어머니학교 1월 P.P 기도회

1월 22일 서빙고 선교관 202호

두란노어머니학교 1월 P.P(Power Prayer) 기도회가 1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202호에서 진행된다.

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P.P 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문의: 02-2182-9114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도행전〉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CGN,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CGN이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이하 ‘사도행전 2024’)를 방영하고 있다. ‘사도행전 2024’는 CGN과 한국로잔위원회 말씀 네트워크가 협력해서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오는 12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40분 방영한다. 기록 OTT ‘풍당’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김유복 목사(대구기쁨의교회),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김익신 목사(광주다일교

회), 박대영 목사(광주소명교회), 권성찬 목사(GMF대표), 진마리아 목사(어린이양교회), 이정규 목사(시광교회),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 문대성 목사(대구동신교회) 등이 출연한다.

‘사도행전 2024’에서는 한국로잔위원회 말씀 네트워크 운동에 발맞춰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성경을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연합과 복음 선포의 중요성을 깊이 되새기도록 돕는다.

/ 홍하영 기자

2024 어머니학교 리더십축제

1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양재 화평홀

2024 어머니학교 리더십축제가 막 오른다. 1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수료자가 그 대상이다. 2024 어머니학교 리더십축제 참가

신청은 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등록비는 없다. 축제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어머니학교 단복을 입어야 한다. 문의: 02-2182-9114

NGO 더멋진세상, 도미니카 거주 아이티 난민 긴급구호

NGO 더멋진세상이 도미니카에 거주 중인 아이티 난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했다. 지난해 아이티 난민 집단 거주지인 도미니카 공화국 두케사(Duquesa)마을에 화재가 발생해 21가구가 전소했다. 이 화재로 두케사마을에 살던 아이티 난민 78명이 집을 잃었다. 이들을 돕기 위해 NGO 더멋진세상이 도미니카 피터 정 선교사와 협력해 두 차례에 걸쳐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아리엘끼(45세, 두케사마을 대표)

는 “NGO 더멋진세상의 신속한 지원과 사랑 덕분에 두케사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고 했다.

도미니카 공화국 두케사 마을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조성됐다. 3천여 세대 1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데 대부분 아이티 난민이다. 이들을 위한 언어교육, 학교 및 병원 신설, 의료 지원, 직업 교육, 아동 보호 지원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문의: 02-2271-2246

온누리교회 역사 자료 수집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책자발간 편찬위원회’에서 온누리교회 역사 자료를 수집한다.

1985년 교회 창립부터 1993년까지 주보, 사진, 양육 자료, 행정 기록(예배 인원 보고 등), 간증집 등을 보관하고 있는 성도들은 서빙고온누

리교회 행정지원실(김경렬 간사)에 가져다주거나 〈온누리신문〉 이메일(onnuriweekly@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자료를 스캔한 다음 원본 그대로 돌려준다.

문의: 02-6959-0001(온누리신문)

대학·청년 인투훈련학교 참가자 모집

2월 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

대학·청년 인투훈련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자아상과 영적 회복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월 15일(목)부터 17일(토)까지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7길 22에서 진행된다. 2월 15일(목)과 16일(금)은 오후 7

시부터 10시 30분까지, 2월 17일(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2월 8일까지 홈페이지(www.into7.net)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문의: 010-9291-8384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장로칼럼

가든지, 보내든지, CGN을 후원하든지



이용경 장로
(CGN 4대 대표)

우리의 생각과 프로젝트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2년을 빼앗긴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난 7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다. 후원에만 의존해 방송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라고 항상 자문하면서 사역해 왔다. 그 점만 확실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채워 주셨다. CGN은 예배와 감사의 공동체다. 직원들은 매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권사님들은 팀을 짜서 CGN 직원들과 후원자들의 기도제목을 붙들고 기도한다. CGN은 처음부터 ‘선교사를 위한 방송’으로 시작되었다. 이 정체성이 CGN만의 ‘블루오션’이다. 그 외의 차별점은 6개의 해외 지사를 통해 7개 국어로 방송하는 진정한 글로벌 선교 매체라는 것이다. 일본지사는 아직도 일본의 유일한 기독교 TV방송이고, 불어권 무슬림을 대상으로 재작년에 개설한 프랑스지사도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산에서 해야 할 역할이 크다. 이 소명을 위해 타 선교단체들과 협력하여 ‘공동체 성경읽기’와 목회자와 선교사역자 양성에 필요한 콘텐츠에 주력해 왔다. ‘서서평’, ‘맨인블랙’, ‘컴백, 흠’과 같은 선교사들의 활동을 조명하고 위로하는 다큐멘터리들은 CGN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 소비행태의 변화에 발맞춰 3년 전에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독교 OTT ‘풍당’도 올해

에는 영어를 비롯한 다국어 버전으로 확장해서 선교사들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다. CGN의 재정적 기반은 현재 4만5천여 명의 후원자들이 받쳐 주고 있다. 7년 전 2만8천 명으로 시작해서 이를 5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 절반의 성공에 머물러 있다. CGN의 미디어 역량을 한국 교회들과 더욱 활발히 나눔으로써 온누리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에게 사랑받는 미디어가 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창립 19년을 맞으면서 이제 청년기로 접어드는 CGN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때가 된 것 같다. 새 술은 새 부대에, 하늘나라가 눈앞에 닥친 상태를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CGN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도 꼭 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새로 부임한 전진국 대표가 지금 CGN이 꼭 필요로 하는 변화와 도약의 단초를 만들어 갈 것으로 믿는다. CGN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지 못하는 몇 이름이 있다.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해야만 하는 일’ 이기에 담대하게 시작하신故 하용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을 도와 초석을 놓으신 손한기, 지성한, 이용만, 정상건, 배종수, 유재건 장로님들. 그리고 초기에 마중물 헌금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길아라 집사님 등 오늘날 CGN이 있게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다. 그중에서 유재건, 배종수 장로님은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아 먼저 가셨지만, 그분들의 CGN 사랑은 잊히지 않을 것이다. 선교를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인 온누리교회에는 오랫동안 ‘선교사를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하라는 구호가 있다. 여기에 하나의 선택을 더 해 ‘가든지, 보내든지, CGN을 후원하든지’가 하용조 목사님이 궁극적으로 그리던 비전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권사칼럼

섬김과 감동이 있는 교회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현관문을 열었다. 순백의 도화지가 펼쳐진 세상, 하얀 순수 앞에 아이들처럼 환호성을 지른다. 고향에 돌아와 전원생활을 하는 요즈음 온갖 번잡함에서 벗어나 마음에 걸렸던 누더기들을 한 겹씩 벗겨내며 조금씩 내 안에 희미하게 바래가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에는 예닐곱 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가 있다. 본 교회인 강동온누리교회에 가기는 멀고, 눈 오고 비 올 때 잠깐 예배드리러 종종 들린다. 일문교회에 올 때마다 큰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다. 일문교회는 어느 대기업 계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신 후 뒤늦게 신학을 공부해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사역지로 이곳을 택해 오신 정진용 목사님이 시무하고 계신다. 목사님 부부를 제외하면 서너 명밖에 안모이는 성도들을 위해 평촌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먼 길을 마다 않고 주일예배를 위해 새벽같이 달려오신다. 사례비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는 열악한 교회 사정이지만 진심으로 양 떼를 사랑하는 목자의 사랑이 느껴진다. 친교 시간에 나눌 간식까지 손수 한가득 챙겨와 섬겨주신다. 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랑에 진한 감동으로 코끝이 찡해진다. 일문교회의 전신인 새생명교회는 십수 년 전만 해도 교인들이 제법 많이 모였었다고 한다. 전에 시무하시던 목사님이 질병으로 돌아가신 후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고 연만하신 장로님 부

부만 남아 지금껏 지성으로 빈 교회를 지켜오고 있다. 언제나 누구든 문 열고 들어와 기도하라고 늘 교회 문을 열어두고 관리하신다. 몸까지 건강치 못한 권사님께서도 손수 도토리묵을 쑤어오기도 하고 찹쌀에 묵나물까지 맛나게 볶아와서 예배 후 오손도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기도 한다.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며칠 전, 멀리서 오시는 목사님과 권사님이 준비해 오시는 섬김에 감동과 미안함이 있어 찰시루떡 반말을 주문했다. 예배 후 성도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 남은 떡은 주변 이웃에 한 조각씩 돌리며 마음의 풍성함을 느꼈다. 시루떡 밑에 처진 팔이 한 대 접은 실히 남았다. 궁리 끝에 팔죽을 씹보기로 했다. 팔에 물을 붓고 찬밥 한 대접 넣어 중간 불에 계속 저으며 적당한 농도가 될 때까지 졸였다. 멀겁던 팔물이 밥과 어우러지며 제법 죽모양을 갖춰갔다. 설설 끓는 팔죽을 나무 주걱으로 저었다. 구수하고 진한 팔 내음이 벌써 침샘을 자극한다. 제법 그럴듯하게 팔죽이 완성되었다. 조금 간 적당히 해서 맛을 보니 상상 이상의 맛이였다. 한 대접 수북이 담은 팔죽을 뜨거운 김 호호 불어가며 맛나게 먹었다. 팔이 팔으로 그냥 남아 있을 때는 아무 맛도 낼 수 없다. 불에 삶겨 삶이 물러 터져 물과 어우러질 때 서로 하나로 엉겨 그 안에 가지고 있던 제맛을 토해낸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기 헌신 없이는 진심으로 하나 되어 어우러질 수 없다. 남아 쳐져 버릴 수밖에 없는 팔도 새로운 목적을 만나 불에 단련되고 제가 깨어질 때 맛있는 팔죽으로 완성되듯 새해에는 고향에 내려와 덩으로 살아가는 내 삶도 목적을 찾아 주변과 어우러져 맛있는 팔죽으로 서는 삶을 살아봐야겠다. 기운이 뚝 떨어져 추운 아침, 뜨거운 팔죽 한 그릇으로 가슴을 데운다.

신앙에세이



강미향 목사
(경주성곡동교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있다면 교회와 가정이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것이 세상에 흘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그 기능은 있는데, 가족애(家族愛)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 가정이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면서 삶이 때 밀라가고, 가족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공간에 살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생각과 마음, 몸이 따로인 괴리현상이 일어난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 흐름에 우리 삶을 빼앗길 수

없다. 정작 사랑을 나눠야 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가정예배’다. 한 가정의 아름다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배우자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면 결혼 승낙 조건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다. 이 조건을 수락한 자녀가 결혼한 이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달에 한 번은 본가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말씀 안에서 한 달 동안 지낸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한다고 한다. 이 가정이 바로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공동체인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다. 부모가 자녀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지 않을까? 말씀 안에서 자라는 그들의 후손들이 기대된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회복해야 할 가정의 모습

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씀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명문가의 모습이다. 우리 가정에서는 부부가 각자 큐티를 하고, 묵상한 내용을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진리의 도담(道談)을 나눌 수 있는 부부는 만사형통(萬事亨通)이다. 두 사람이 각자 신앙생활을 하지만, 같은 말씀 본문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 적용했던 것을 함께 나누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줄 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부구나’를 깨닫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자녀들이 우리집을 방문할 때도 동일하게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눈다. 그 시간에 세대 간의 소통이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가족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시 127:1).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을 건축하는 삶이 된다면 그것보다 확실한 축복이 없을 것이다. 많은 수고를 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기초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어졌다면 어떻게? 쌓을수록 위태로워질 것이다.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중심이 되어 주신다면 진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가정은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신앙의 명문 가문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11:00 선교관 콘서트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한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광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광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본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광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주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장로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자격: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온누리교회 장로로 65세 이하
문의: 박일면 총무(010-3708-5781)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직원 모집
근무: 주 5일 또는 파트타임(주 3일~4일)
업무: 총무 및 회계
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1월 25일까지 kimluth@hanmail.net
문의: 010-8465-9094

더멋진세상 모집공고
모집: 경영지원실 행정· 회계 1명
자격: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및 문서 독해 능력, 컴퓨터 기본 활용 및 문서 작성 능력(MS 엑셀 필수)
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서류: 입사지원서
접수: 1월 28일까지 이메일(duna30@abetterworld.or.kr) 제출
문의: duna30@abetterworld.or.kr, 070-4402-3023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어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어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주일 오후 2시~6시
장소: 안산 고려인 동포교회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임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케냐 마사이부족 엔게레수나 어린이 후원
품목: 5~12세용 영어책(학습지는 받지 않습니다), 아동 운동화(사이즈 190~230), 공책, 필기 도구, 수건(욕실 타올, 사용감 없는 타올)
보낼 곳: 양재온누리교회 목회지원실
문의: 임정윤 간사(02-570-7469)

2024 양재 사이닝키즈 모집
기간: 3월 9일~4월 27일 매주 토 10:00~12:00
장소: 꿈아이홀
등록비: 12만원
모집: 1월 29일~2월 5일 18:00까지
신청: <https://naver.me/5aqLFbdP>
문의: 조미영 코치(010-3291-9090)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1부 9:00, 영어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평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평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평홀 / 초등부 11:30 2층 꿈평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평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평(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펜젤러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4층 영어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관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권용갑
김혜영 김도균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종 김승겸
김용산 김용태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현철 김종민 김종아
김중호 김창호 김태웅 김태완
김찬규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혜태 량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천중 박형준 배형삼 박성우
백인규 변대설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라 송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준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인아 유현복 윤마리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정재원 정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 와 무
라 오사키
한화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중 신주용 송애란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임동현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황유일

● 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거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가 나
김용산 김진숙 박지붕
김진영 김태주 박승현
김태욱 네트라 백승현
김정욱 박씨마 백승현
서영철 상아바 사가르 양현수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강혁
이민영 아라파드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정욱진 제인랑 홍혜안 차제이미
최정현 하효경 황연신

● 전도사(파트)
강정모 강범주 강하람 강현구
김기웅 강병진 권대식 권애람
김기환 김기태 김기태 김대태
김영배 김요성 김동근 김승민
김승완 김요성 김윤식 김재석
김용산 김용태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현철 김종민 김종아
김중호 김창호 김태웅 김태완
김찬규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혜태 량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천중 박형준 배형삼 박성우
백인규 변대설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라 송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준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인아 유현복 윤마리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정재원 정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 와 무
라 오사키
한화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중 신주용 송애란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임동현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황유일

● 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거 이기복

김 완 김원성 김 웅 김용배
김 김 원 김원국 김원준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재욱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김상권 노재한
노용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창실 문현구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영국 박영애A
박영애B 박용국 박우형 박승현
박찬빈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백남인 배승웅 배호현 배홍기
상병선 서진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연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환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팔
우승구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서현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희 윤정수
이강범 이기재 이영찬 이관수
이광현 이국주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상기 이영길 이영길
이영세 이영철 이웅걸 이용하
이우근 이웅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중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이환선 배종신 배종욱 서달식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규영 전정하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구 정병권 정보원
정승봉 정영열 정용환 정재탁
정재현 정영현 정진태 조규상
조성근 조성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환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전영민 최도성 최득민 최 병
최상근 최진성 최정규 최정수
최홍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종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중태 한정석 한형식 함공식
한선호 허광수 허형석 호종일
홍기범 홍덕표 홍범식 홍중철
홍정표 홍해남 홍영욱 황용오
황지관 황재규

강신익 강태욱 강병철 광태일 광희준
구자영 권순형 권오습 권오혁
권혁은 금세종 김경돈 김경하
김동연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두진 김만순 김병세 김병현
김성호 김진갑 김민준 김병욱
김상규 김상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훈 김성종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옥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형찬C 김용기
김영호 김형준 김이준 김인선
김정열 김정민 김중민 김준영
김중환 김준희 김지현 김지현
김지홍 김창석 김창원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현주 김형겸
김형선 김형준 김형중 김화선
김하수 김효구 김해준 나광욱
나 영 나영옥 남병현 남상길
남성식 민문기 박구병 박국명
노경환 노기홍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명연찬 문정식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국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우 박명률 박성규 박순길
박용익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종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란 박 현 박현규 박형민
박홍선 방찬중 배종욱 서달식
배승호 배종신 배종욱 서달식
서병우 서병하 서성환 성광재
성두영 손기철 손기태 손정래
송대웅 송기선 송동선 송종환
송호철 신귀선 신동기 신우환
신민호 신 섭 신재영 신철우
심효부 심희돈 안동철 안상현
양상식 양 웅 양성철 양준호
양준경 양성목 양성훈 오 병
오범규 오성목 오성훈 오성탁
오이식 윤대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석일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광순 이광훈
이규전 이남식 이복용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울 이상준 이상혁 이석일
이성진 이상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원장

이재훈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김성현 김인혜 김정욱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설상경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원유미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영은 이용기 이은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병천 정성진
정은숙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코바야시 메구
하여진 하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 e 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종수 우승호 윤영오
이광철 이문호 이정기 임병욱
정길안 한덕종 홍규석

● 사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오택 성한재 손정래 신술문
여훈필 유희민 이관표 이상현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희 조윤행
최정주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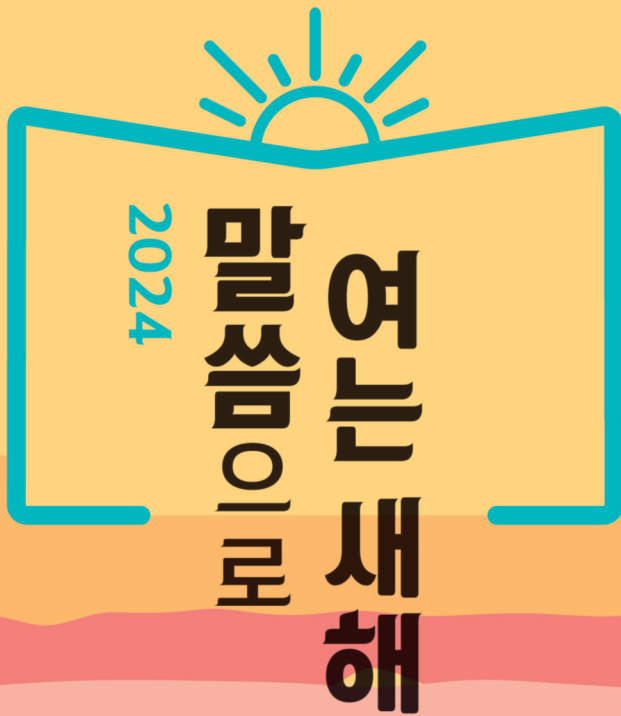
● 명예장로
김용석 임성국 윤부국

●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승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현식 오명진
정성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진영 김홍규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해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나눔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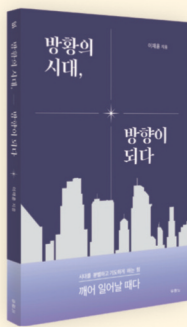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시편 1:1-2)

도서



말씀이 함께하는
거룩한 습관,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음성**
김병삼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하게 하는 힘
**방황의 시대,
방향이 되다**
이재훈



낙심, 피로, 분노, 불안을
끊는 온전한 연결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카일 아이들먼

큐티지 · 매거진



생명의삶 · 생명의삶 플러스
청·장년 목회자



sena · 예조 · 예수님이좋아요 · 예수님이랑나랑
청소년 고학년 저학년 유아 |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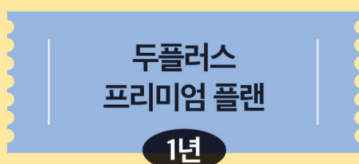
목회와신학 · 빛과소금
그말씀



2023 기독교 브랜드 대상 수상
- 리딩 브랜드 부문 -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duplus

단·체·구·독 새해맞이 혜택!
(~1. 31 까지)



신청 방법

두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02.2078.3234 TALK 카카오톡 (@두플러스)

정가 300,000원 (1인) 12개월	2인 이상 신청 시	210,000원 (1인) + 1개월 더 (13개월) 30%
	5인 이상 신청 시	195,000원 (1인) + 2개월 더 (14개월) 35%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지금 **두플러스 Q** 를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www.du.plus
모바일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